행정안전부 보도자료 대체불가 대한민국

보도시점 (온라인) 2026. 11. 12.(목) 12:00
(지 면) 2025. 11. 13.(금) 조간

행안부, '정부24' 우수 성과 13개국에 공유… 세계가 주목하는 K-디지털정부

- 9~11월, 캐나다·이집트 등 13개국 100여 명, 정부24 경험 배우러 방문
- 출생·취업 등 생애주기별 원스톱서비스 및 AI 국민비서 등 수요자 중심 혁신 사례에 높은 관심
- 디지털정부 전시체험관 찾은 32개국 292명 등 대한민국 디지털 행정 경험 국제사회와 적극 공유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9월부터 11월까지 8차례에 걸쳐 13개국 정부부처·공공기관 관계자 100여 명과 정부24 경험 공유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24를 배우려는 해외 국가들의 방문과 협력 요청에 따른 회의로, 9월 우즈베키스탄을 시작으로 10월 케냐·캐나다·아르메니아·모잠비크·르완다, 11월 이집트·태국 등이 다녀갔다.

정부24는 기관별로 흩어져 있던 행정 서비스를 국민 관점에서 하나로 연결한 대한민국 디지털정부의 대표 포털이다. 온라인에 최적화된 이용 환경을 갖춰 국민 중심 행정 혁신의 모범 사례로 평가받고 있으며, 통합된 온라인 민원 처리를 넘어 안심상속·맘편한 임신 같은 원스톱서비스와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안내 서비스인 AI 국민비서로 영역을 넓혀가고 있다.

국민이 서비스를 직접 찾아다니지 않아도 필요한 서비스를 먼저 안내받고, 신청부터 처리 확인까지 한 흐름으로 이용하도록 하는 것이 목표다.

방문국들은 제도와 환경은 저마다 다르지만, 디지털 기술로 행정을 효율화하고 국민 부담을 줄인다는 같은 목표 아래 정부24를 자국 디지털정부 정책의 실질적인 참고 사례로 삼고 있다. 특히 '국민 중심 설계'와 부처 간 협력

체계에 큰 관심을 보였다.

10월 20일, '글로벌 AI & 디지털 서밋'에 참석한 모잠비크 디지털정부 관계자(장관급)는 "부처별로 서비스가 나뉘어 국민이 불편을 겪고 있는데, 정부24가 출생·취업 같은 생애주기별로 서비스를 재구성한 것을 보고 큰 감명을 받았다"라며, "행정 조직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는 확신을 얻었다"라고 말했다. 11월 4일 정부24를 찾은 이집트 실무 공무원은 "범정부 협력 체계로 부처 간 장벽을 어떻게 허물었는지, 실제 시행착오와 성공 요인을 구체적으로 들을 수 있어 유익했다"라고 말했다.

한편, 같은 기간에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디지털정부 전시체험관을 통하여 32개국 292명의 정부 부처·공공기관 관계자가 정부24 운영을 경험했다.

행정안전부는 앞으로 인공지능(AI) 활용과 온라인 민원 서비스 확대 등 정부24를 지속적으로 고도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그 성과를 국제사회와 적극 공유해 디지털행정 분야의 국제 협력도 넓혀 나갈 방침이다.

장동수 인공지능정부서비스국장은 "여러 나라가 정부24를 배우러 찾아오는 것은 대한민국 디지털정부 경험에 대한 국제사회의 높은 관심을 보여준다"라며, "국민이 체감하는 행정 서비스 혁신을 계속 추진하며, 그 경험을 나눠 디지털정부 분야의 국제 협력에도 기여하겠다"라고 밝혔다.

담당 부서 <정부 24>	행정안전부 통합포털정책과	책임자	과 장	정현관 (044-205-6450)
		담당자	사무관	정순희 (044-205-6447)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대체불가 대한민국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